

<체육대회를 마치고>

강서현	체육대회를 마치고(강서현) 체육대회를 마치고 느낀 점은 조금 많이 아쉬웠다. 왜냐하면 여자 청, 백 피구도지고, 체육대회도 결과는 청팀이 졌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던 하지만 그래도 반별 피구 리그전은 우리 반이 이겼기 때문에 그나마 즐거운 체육대회였다. 그래도 체육 대회 중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피구였던 것 같다. 만약 다음 체육대회가 있다면 그때는 반티를 입고하고 싶다.
김다연	체육대회를 마치고(김다연) 체육대회를 마치고 난 소감은 체육대회를 우리 팀(백팀)이 이겨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하다가 내가 신발 던지기를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근데 림보 연습을 하다 넘어졌는데 꼬리뼈가 아직도 아프다. 근데 사실 체육대회는 청팀이 이겨도 그냥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피구 결승전이었는데 우리 반이 이겨서 너무너무 좋았다. 끝나고 먹은 콜팝도 맛있었다. 다음에도 체육대회를 하고 싶다.
김다혜	체육대회를 마치고(김다혜) 체육대회 맨 처음에는 실내화 던지기를 했다. 근데 백팀이 이겼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달리기하는 것도 했는데 그것도 간발의 차이로 백팀이 이겼다. 그리고 8자 줄넘기를 하는데 우리 반이 제일 자신 있는 종목이었다. 8자 줄넘기도 백팀이 이겼다. 그다음으로는 림보를 했다. 림보는 백팀이지고 청팀이 이겨서 매우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장애물달리기를 했다. 그것도 백팀이 이겼다. 그리고 3반과 2반 피구 경기를 했는데 우리 반이 이겨서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다. 시간이 남아 여자 청 vs 백 남자 청 vs 백을 했다. 두 번 다 백이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다음에 하면 힘들 것 같고 질것 같다. 그래도 엄청 재밌었다.
김라혜	체육대회를 마치고 (김라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랐지만 새로워서 재밌었다. 신발 던지기, 주사위 던지고 뛰기, 팔자 줄넘기, 림보, 장애물 달리기, 피구 다 정말 재밌었다. 반티가 없어서 아쉬웠던 했는데 피구를 이겨서 좋았다. 솔직히 피구를 못 이길 것 같았는데. 이겨서 엄청 좋았다. 물론 백팀이 이겼긴 했지만 나는 피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별로 슬프진 않았다.

김승현	<p>체육대회를 마치고(김승현)</p> <p>처음은 신발 던지기였고 내가 20점을 넣었지만 아쉽게 졌다. 두 번째는 주사위 달리기였다. 운이 없어서 졌다. 다음은 줄넘기인데 백팀이 너무 잘해서 졌다. 다음 림보는 청이 이겼는데 둘 다 잘했다고 양쪽 다 100점을 줬다. 다음은 장애물 달리기였는데 이것도 졌다. 드디어 다 끝나고 피구를 했다. 3반 vs 2반이었는데 3반이 이겼다! 피구왕은 우리 반이었다. 다음은 청 vs 백 피구대결인데 백이 이겨서 최종 승리는 백팀이었다. 2학기에도 체육대회가 있다고 해서 기대된다.</p>
문준원	<p>체육대회를 마치고(문준원)</p> <p>체육대회 때 재미있는 것이 많았지만 다리를 많이 빼어서 아팠기도 했고 재미있기도 하였다. 근데 빼어도 너무 많이 빼었다. 다리가 아직도 아픈 것 같다. 하지만 재미있었다. 오늘 아침엔 아프지도 않았다. 신기했다.</p>
박시현	<p>체육대회를 마치고(박시현)</p> <p>체육대회를 마치고 느낀 점은 체육대회를 할 때는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힘들어졌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초반쯤에 우리 반이 2반에게 피구를 질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 반이 이겨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2번째 피구에서는 청팀 VS 백팀으로 했는데 나는 백팀이 질 줄 알았다. 왜냐면 청팀에 잘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내 예상과 다르게 백팀이 이겼고 체육대회가 다 끝난 다음에 콜팝을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다.</p>

체육대회를 마치고 봉준형

피구대회 때 결승전도 못 가고 3등 정도 할 줄 알았는데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좀 기대했다. 결승전 처음에 이기고 있길래 1등을 할 수 있고 생각했다. 결국 이기고 청백전에도 질 것 같았던 백팀이 이겨서 기분이 좋았다. 체육대회를 준비할 때 우리 반에서 백팀이 질 것 같았는데 연습경기 때 이기고 체육대회 때도 이겼다. 그렇게 모두 질 것 같았던 반 피구대회, 백팀 청팀 대결 이겨서 엄청 기분이 좋았다.

심하은	<p>체육대회를 마치고 -심하은-</p> <p>체육대회를 마치고 가장 먼저 든 감정은 아마 뿌듯함이었을 것이다. 청/백 경기보다는 피구 결승을 이긴 것이 더 만족스러웠고 좋았다. 그리고 8자 줄넘기를 많이 연습한 것이 여기서 효과를 발휘하구나를 실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체육대회가 끝나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보람 있고 재밌었던 체육대회였다.</p>
안도연	<p>체육대회를 마치고<안도연></p> <p>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떨렸다. 첫 번째 경기는 신발 던지기였다. 재밌었고, 백팀이 이겨서 좋았다. 두 번째 경기는 주사위 달리기였다.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다 보니 괜찮아졌다. 세 번째 경기는 줄넘기를 했다. 애들이 너무 잘해서 놀랐고, 참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네 번째 경기는 림보였다. 허리를 꺾어서 통과했다. 3번째 림보가 제일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포기했다. 몇몇 애들은 유연해서 깜짝 놀랐다. 다섯 번째 경기는 장애물 달리기였다. 좀 힘들고 어려웠다. 그런데도 재미있었다. 2반과 피구를 했는데 우리반이 이겼다. 좋았고 뿌듯했다. 6교시에 콜팝을 먹었다. 참 맛있었다. 다 먹으니 배가 불렀다. 또 하고 싶은 체육대회였다!</p>
양서준	<p>체육대회를 마치고[양서준]</p> <p>백팀이 이겨서 좋았고 3반 vs 2반 해서 우리 반이 이겨서 좋았다. 그리고 수업을 안 하고 콜팝도 먹고 그림도 그리고 학급 온도계 점수도 3점이나 받고 방탈출도 해서 좋았다. 영화가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재밌었고 이겨서 뿌듯했고 공부를 안 해서 아주 좋았다.</p>
오승호	<p>체육대회를 마치고</p> <p>피구 결승에 가서 솔직히 질 줄 알아서 그냥 끝까지 살아남자는 심리로 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피하기만 하자고 생각했는데 2반이 5명 남고 우리 반이 6명 남아서 이겨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느낀 점은 우리 반이 최고이다. 그리고 청, 백 피구 할 때는 애들이 많아서 쉽게 아웃 돼서 지겠구나 했는데 백군이 청군을 이겨서 기분이 좋았다.</p>

오연아	<p>체육대회를 마치고(오연아)</p> <p>체육대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팀이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작한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다 백팀이 이겼는데 우리 팀도 1경기는 이겼다. 백팀이 이겼을 때 진짜 정말 속상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다음부턴 아무 생각도 없었다. 체육대회 청백 대전은 끝나고 2반하고 우리 반이 피구 리그전 결승전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리 팀이 많이 맞춰서 좋았는데 몇 분 안 남았을 때 우리 팀도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질까 봐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반이 이겼다. 한 명 차이로. 근데 2반 애들이 자꾸 마지막에 손이 스쳤다고 우겨서 짜증 났다. 하지만 이겨서 좋았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너무 배고프고 그냥 힘들었다. 힘들었지만 재미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하고 싶다.</p>
이서윤	<p>체육대회를 마치고(이서윤)</p> <p>체육대회를 마친 소감은 일단 2반과의 피구대결에서 우리 반이 질 줄 알았는데 우리 반이 이겨서 좋았다. 체육대회를 하고 느낀 점은 청팀에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질 줄 알았는데 마지막 피구대결에서 이겨가지고 백팀이 이겼다.</p>
이하윤	<p>체육대회를 마치고(이하윤)</p> <p>체육대회를 마치고 느낀 점은 좀 아쉬웠다. 첫 번째로 신발 던지기를 했는데 잘해서 이길 것 같았다. 근데 너무 백팀이 잘해버려 가지고 우리가 지게 되었다. 두 번째로 주사위를 던져 그 수만큼 고깔을 도는 걸 했다. 주사위가 너무 안 멈추고 데굴데굴 마음대로 움직여 많이 많이 답답했다. 그리고 8자 줄넘기, 장애물 넘기, 청백 여남 피구 등을 다 저서 좀 짜증나고 힘들고 아쉬웠다. 하지만 피구 결승전 (2반 대 우리 반)에서 우리가 이겨서 너무나 좋았다. 애들한테 이번 체육대회 준비하느라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다. (선생님들도)</p>
전호승	<p>체육대회를 마치고</p> <p>첫 번째 경기 실내화 던지기는 훌라후프 안으로 넣어야 해서 많이 어려웠지만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 같아 좋았다. 두 번째 경기 주사위 달리기는 주사위를 굴리고 바로 달리는 경기라서 내 차례가 될 때마다 짜릿한 기분이 들었다. 세 번째 경기 림보는 높이가 낮아서 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네 번째 경기 8자 줄넘기는 내가 줄넘기를 못해서 그냥 숫자만 셨던 게 아쉬웠다. 그래도 재미있는 경험이었다.</p>

정재원	<p>체육대회를 마치고(정재원)</p> <p>체육대회 때 반티를 못 입어서 슬펐는데 반티가 너무 부럽진 않았고, 운동장에서 한다더니 강당에서 해서 너무 다행이었다. 각 종목을 할 때 백이 계속 이겨서 짜증 났는데 마지막에 피구 리그전을 할 때 아... 우리가 지면 애들이 놀릴 줄 알았는데 이겨서 체육대회가 좋아졌다.</p>
조건희	<p>체육대회를 마치고(조건희)</p> <p>체육대회를 해서 재미있었고 백팀이 이겨서 좋았다. 청팀도 잘한 것 같다. 주사위 달리기, 장애물 건너기가 재미있었다. 피구대결에서 우리반이 이겨 기분이 좋았다. 청팀 대 백팀 피구대결도 정말 재미있었다. 백팀이 피구대결을 이겨 최종 우승으로 백팀이 승리해서 기분이 좋았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p>
조승호	<p>체육대회를 마치고(조승호)</p> <p>체육대회를 마치고 내가 느낀 점은 끝나서 할 것도 없고 이제 피구 연습 출렁기 연습을 못하는 것이 아쉽다. 체육대회를 하면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대결을 했는데 이제는 못한다는 게 아쉽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하고 싶다. 반티도 맞추고 정말 좋았다. 백팀이 체육대회에서 이겨서 좋았다.</p>
진창우	<p>체육대회를 마치고(진창우)</p> <p>체육대회를 마치고 내 느낀 점은 첫 번째로 신발 던지기를 할 때 내가 혼자 40점을 넣었는데 못 이겨서 많이 아쉬웠고, 다음 종목에서 주사위가 갑자기 6에서 3으로 바뀌어서 많이 화가 났었다. 그리고 피구를 할 때는 재미있었고 힘들지도 않았다. 마지막에 청팀, 백팀으로 나눠서 피구를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아웃돼서 기분이 안 좋았다. 그리고 6교시에 콜팝이 너무 맛있었다.</p>

최건호	<p>체육대회를 마치고</p> <p>어제 체육대회가 끝이 났다. 정말 재미있었다. 재미있었던 점 첫 번째는 놀이가 재미있었다. 두 번째는 청팀이 젤 기분이 좋았던 게 피구 리그전에서 2반을 이겨서 좋았다. 청백 피구는 졌지만 그래도 2반을 이겼다. 마지막에 콜팝과 오토 드로우랑 방탈출도 재미있었다.</p>
하지현	<p>체육대회를 마치고(하지현)</p> <p>체육대회를 시작할 때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까 봐 걱정이 아주 아주 많았다. 내가 딱 그 장애물 1을 쓰러트려서 아주 걱정이었는데 누가 다시 세워줘서 굉장히 고마웠고 내 뒤에 있던 사람이 늦게 가서 굉장히 미안했다. 그리고 피구를 할 때 나는 우리가 진 줄 알았는데 2반이 3명, 우리반이 5명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또 청팀이 점수가 낮아서 그랬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p>
한가현	<p>체육대회를 마치고 (한가현)</p> <p>청팀 백팀 중 백팀이 이겨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놀이랑 활동을 하니 재밌었다. 나 때문에 누가 뭐라 뭐라 해서 진짜 짜증 났다. 다른 애들한테도 그렇게 했지만 그런 애가 제일 싫다. 그리고 피구대회가 이긴 후 정말 기뻤다. 2반 애들이 자기반이 이길 거라고 비난했지만 이기고 난 후 뿌듯했다. 6학년 전체에게 콜팝도 주고 정말 좋았다. 그리고 다시는 체육대회 하고 싶지 않다.</p>
허정윤	<p>체육대회를 마치고(허정윤)</p> <p>어렸을 때 한 체육대회는 모두 다 청팀이 이겨서 좋았지만 제가 백팀인 6학년 체육대회에서 백팀이 이겼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기대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그 결과가 백팀의 승리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3반이랑 2반 피구 결승전에서도 이겼는데 사실 체육대회에서 백팀이 승리했던 것보다 피구 리그전 결승에서 이긴 게 더욱 좋았습니다.</p>